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처벌

군산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확진자 50.2% 차지

군산시는 17일을 기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기간은 1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다.

이는 지난달 행정명령(연장포함) 발령에도 8~9월까지 확진자 208명(9.15일 기준) 중 외국인 확진자가 102명으로 50.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다시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는 행정명령의 대상을 특선했다.

이번 행정명령 주요내용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일용근무자에 한함), 인력사무소, 태안광사업장의 고용주는 근로투입 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반

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 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관리자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 발령 전 코로나19 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명령 발령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는 7일간 유효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고용주, 인력사무소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

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된다.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생말공원(오식도동 508)에서 17일(금), 23일(목), 27일(금) 총 3차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산시보건소 선별검사소도 연휴기간과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번 검사에서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없이 무료로 PCR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방역목적으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외국인 체류자의 검사기피 현상을 감안한 조치로 검사율 향상을 위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지역경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익산시, 전통시장서 장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돕기 나서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지난 15일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국·소·단별 직원들은 북부시장을 비롯한 7개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의 활기 찾기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연휴기간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지역화폐인 다이로움과 온누리상품권을 활용,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특히 전통시장 상점에서 다이로움 카드를 사용하거나 식사비로 3만원 이상 결제 후 인증 이벤트에 참여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1만원 포인트를 지급한다.

정현을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전통시장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에 동참해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삼

양압 컨테이너 확충 비대면 선별진료소 운영

익산시, 비접촉 방식으로 검사과정서 의료진·민원인 동선 완전 분리

익산시는 비접촉 방식으로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비대면 선별진료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익산시는 양압 컨테이너 장비확충을 통해 검사과정에서 의료진과 민원인의 동선을 완전 분리한다.

선별진료소는 비대면 역학조사실 4개, 검체채취실 3개를 양압 컨테이너 시설로 운영한다.

또 키오스크 진행순서 안내판, 번호표 발급기 등을 도입해 선별진료소

이용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시는 도내 최초로 QR코드 전자문진표를 도입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진표를 미리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전자문진표 이용이 노인층을 위해 종이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따로 설치 분리해 운영한다.

또 기존 검사자 정보를 수기로 접수하던 것을 전자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양압컨테이너 도입으로 냉방이 잘 안 되는 기존 천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열악한 시설에서 벗어나 의료진들과 PCR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시민 모두가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장비확충으로 감염위험을 낮추고, 의료진의 근무여건향상과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삼

군산시, '감사의 마음' SNS 이벤트 호응속 마무리

“마음 전해주는 좋은 이벤트에 뽀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군산시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진행한 SNS 이벤트가 잔잔한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9월초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 방문이 어려운 타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군산에 살고 있는 가족·친구·지인에게 인부 인사 결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등에 관한 사연을 접수 받았다.

그 중 총 9개의 사연을 선정하여, 시에서 직접 마련한 특산품 꾸러미 상품과 함께 사연 당사자의 집을 찾아 배송했다.

선물을 받게 된 미성동 거주 조00씨

는 “처음에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했는데, 실제로 편지와 선물을 받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사연을 신청한 일산 거주 이우영씨는 “마음을 전해주는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신청해 봤는데 뽀히게 돼 좋았다”며 “멀리 계신 부모님이 감동받은 시는 걸 보니, 군산시 덕에 효도한 기분”이라며 감사해했다.

이벤트를 담당한 시 관계자는 “소소한 이벤트지만 관심 갖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시민들이 즐겨워하며 감동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니 업무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가 추진한 “안녕, 내 마



음을 부탁해!”란 의미를 담은 인부박스 SNS 이벤트는 9월 1일~9월 10일(금)까지 10일간 접수된 사연을 대상으로 상품을 함께 선물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생생직업체험교실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가 초등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개설한 ‘생생직업 체험교실’ 하반기 과정이 호응을 얻고 있다.

하반기 직업체험은 지난 4일 물리학과와 패션디자인 체험을 시작으로 ▲공중연구기(9.25~9.26) ▲조항사(10.2~10.3) ▲과학수사대(10.9~10.10) ▲신약개발연구원(10.16~10.17) ▲건축설계사(10.23~10.24) ▲의료보건관련 직업

(10.30~10.31) ▲법조인(11.6~11.7) ▲유전자감식연구원(11.13~11.14) ▲소콜라티에(11.20~11.21) 등 11개 과정이 진행된다.

10월에 운영되는 체험교실의 예약은 오는 27일 10시부터 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3시, 2회차씩 운영되며, 회차 당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수송동 맘껏광장에서 진행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은파요양병원·농협, 추석 이웃돕기 손길

군산시에 기업과 단체로부터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은파요양병원(원장 김경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20kg) 92포(500만원 상당)를 군산시에 기탁했다. 은파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개원 이래 시와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경태 원장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곳을 찾아 사랑 나눔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NH농협은행 군산시지부(지부장 김대호)도 어려운 이웃들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군산=남협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코로나 확진자 2명 거짓 자료제출 고발

군산시는 지난 14일 15일 코로나19 확진자인 외국인 근로자 A씨 등 2명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를 한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2021년 8월 20일부터 태안광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9월 3일에는 태안광 사업장 및 인력사무소 주요대표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장에서 PCR 음성결과가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참여하기로 협의하였고, 카자흐스탄 확진 급증에 따라 9월 7일부터는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근로자 참여시 PCR 결과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국적을 포함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군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A씨 등 2명은 국적을 숨겨 사업장에 참여하여, 밀접접촉자로 인한 코로나 감염확산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추석 명절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총력

군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농가는 물론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가축질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성 질병은 기온이 내려갈수록 발생 및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발생할 경우 치사율이 높고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국가 재난형 가축 질병이다.

특히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 강원지역의 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유럽에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는 등 병원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차단 방역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군산=남협봉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